

## 광주일고 유창식 7억 몸값 신인 최고예약

### 한화측 “몸 컨디션 정상... 걸맞는 대우 해주겠다”

광주일고 원손 투수 유창식(18)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을 예약했다.

지난달 16일 2011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유창식은 지난주 신체검사를 끝내고 곧 구단과 계약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유창식은 아픈 곳도 없었고 몸 상태가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인 중 최대어로 꼽힌 유창식이 몸값으로 얼마나 받을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윤종화 한화 단장은 “협상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힐 수 없다”고 말

했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에 정통한 각 구단 스카우트들에 따르면 유창식의 계약금은 6억원에서 최고 7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 투수 유원상이 한화에 입단하면서 받은 5억5천만원에 넘는 액수여서 역대 한화 신인 최고 계약금을 새로 쓸 게 확실하다.

전면드래프트가 처음으로 열린 작년에는 투수 신정락(LG)이 계약금 3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화는 유창식이 신체검사를 무사히 통과해 흥집을 데가 없는 데다 미국프로야구 진출을 위로하고 국내 잔류를 택한 만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참이다.

한편, ‘빅 3’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승혁(덕수고)은 KIA와 함께 진행돼 9월 3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팬들에게 첫 인사를 한다.

현역 고등학교 선수 중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한승혁은 이름값도 있고 메이저리그를 역시 포기한 대가로 계약금은 2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어급 3층사에 이어 준적급 투수들은 대부분 1억~2억원을 쟁길 것이라는 게 시장 판세다. /연합뉴스



물보라를 헤치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수구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몬테니그로의 말잔 아노빅(왼쪽)이 이탈리아의 마시모 지아코포를 제치며 패스 동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소연, 美여자프로축구 보스턴 가나

### 올댓스포츠 입단 협상

한국 여자축구의 희망 지소연(19·한양여대)이 그동안 자신의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미국여자프로축구(WPS) 보스턴 브레이크스와 본격적인 입

단 협상에 나선다. 지소연의 국외 진출은 피겨스타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쉐넬스포츠가 돕는다.

올댓스포츠는 “2010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한 한국 대표

팀의 주역 지소연과 2014년까지 4년간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지소연의 국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선수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서 구단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그동안 보스턴이 지소연의 영입을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작년 16승1무2패 “사랑해요 LG”

## 올해 “쌍둥이가 무서워” 6승11패

### ■ KIA-LG ‘뒤바뀐 천적’

올 시즌 프로야구 천적구도가 달라지면서 KIA 타이거즈의 운명도 바뀌었다.

2010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팀의 천적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5월을 한창 밀도는 승률로 5위를 달리고 있는 KIA는 롯데(11승6패), 한화(13승3패)를 제외한 5개 팀과의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단 한 번의 대결을 남겨두고 있는 1위 SK에게 5승13패의 저조한 승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달 30일 현재 2위 삼성, 3위 두산 등 상위권 3개 팀에 14승35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강팀들과의 대결보다 더 아쉬운 것은 6위 LG와 7위 넥센과의 대결이다. 특히 6승11패를 안겨준 LG와의 대결은 두고두고 아깝다.

1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지난해, KIA는 7위 LG와의 19번의 대결에서 무려 16승을 챙겼다. 16승을 안겨주었던 LG는 2위 SK와 3위 두산까지 견제해주며 KIA 시즌 1위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후반기 무서운 연승행진으로 KIA의 1위 자리를 위협했던 SK는 13연승 중이던 지난해 9월13일 LG에게 통탄의 무승부를 기록했다. 양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이었던 이날 SK는 잠실에서 만난 LG의 공격에 12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G에게 일격을 당한 SK는 19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고도 1게임차로 한국시리즈 직행티켓을 KIA에게 내줬었다. LG는 한지붕 두 가족인 두산을 상대로는 13승6패를 만들어내며 KIA의 1위 독주를 힘을 실어주었다.

‘사랑해요 LG’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LG는 KIA의 우승에 디딤돌이 됐다. 하지만 올 시즌 양팀의 입장이 달라졌다. 시즌 첫 대결이었던 4월16일 역전패를 시작으로 KIA는 LG에게 6승11패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KIA 투수들의 팀 평균자책점은 4.21이지만 LG 타자들을 상대로 한 평균자책점은 5.58까지 치솟는다. LG는 에이스 윤석민에게 3분의 2인 8실점(6자책)의 불명예를 안겨주기도 했다.

5월10일 조인성의 끝내기 안타에 6연승이 좌절됐던 KIA는 지난 7월15일에는 이용규의 홈스틸까지 앞세우고도 조인성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한호의 땅 잡살이 악몽의 땅으로 변해 버렸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번번이 LG에 덜미를 잡힌 KIA는 결국 5위에서 시즌 마지막 자리를 보내고 있다. 5위 자리까지 위협 받고 있는 KIA는 새로운 천적구도를 형성한 LG와 오는 18·19일 시즌 마지막 두 경기를 치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사구논란’ 윤석민 팀 복귀

‘사구논란’에 휘말렸던 KIA 타이거즈 투수 윤석민이 팀에 복귀한다.

지난달 26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윤석민이 1일 재할군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한다. 윤석민은 지난달 24일 롯데와의 사직경기에서 나온 사구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엔트리에서 제외됐었다.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윤석민은 그동안 특별한 훈련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했었다.

한편 지난 7월27일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투수 전태현도 2일 재할군에 합류, 본격적인 몸담들기에 들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축구장서도 트위터 이벤트

### K리그 응원 앨범 발매 기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응원 앨범 발매 기념 트위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되며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INTO THE K-LEAGUE’ 앨범 14곡을 다운로드받아 감상한 후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곡의 제목과 이유를 적어 K리그 공식 트위터(@kleague)로 멘션(트위터를 통해 언급)을 보내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

‘INTO THE K-LEAGUE’는 지난달 30일 K리그 서포터즈 연합이 발표한 앨범으로 노브레인, 슈퍼키드, 슈가도넛 등 국내 정상급 밴드 13개팀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INTO THE K-LEAGUE’ 앨범 CD(50명)와 패밀리 레스토랑 뷔프의 식사권(10명)이 선물로 증정 된다. 당첨자는 9월 6일 K리그 홈페이지와 K리그 트위터(http://twitter.com/kleague)를 통해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

### 수원대수유점 매점 운영

## 슬로시티 증도

주요특점: 1. 1인용~4인용 객실 2. 야외수영장 3. 사우나 4. 족욕탕 5. 스팀 사우나 6. 탁구장 7. 탁구대 8. 탁구공 9. 탁구망 10. 탁구대 11. 탁구공 12. 탁구망 13. 탁구대 14. 탁구공 15. 탁구망

예약문의: 031-270-1111 (주말 24시간)

### 서둘머스 은행

● 정기예금: 15,000원 / 18,000원

종류	금리
1년 정기	3.5%
2년 정기	3.8%
3년 정기	4.1%
5년 정기	4.4%